

아픈 이들 간절한 발원 품어주는 약사여래도량

찜질방이 있는 사찰 - ① 횡성 불토사

초기 불교의 절에는 찜질방이 있었다고 한다. 황토 벽을 발라 잘 다진 방을 만들고 불을 지피, 몸을 지지고 땀을 흘렸다. 말 그대로 찜질방인 셈이다. 최근 발간된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불광출판사 펴냄)의 저자 원영 스님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승원의 초기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요즈음은 절에서 찜질방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신도들의 건강을 위해 찜질방을 만든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치악산 자락의 강원도 횡성 불토사다. 약사여래도량답게 7년전 중창 불사를 하면서 주지 지성 스님이 황토방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기도 목적으로 찾아온 불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된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리 예약만 하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방과 식사, 찜질방이 무료로 제공됐다. 하지만 공중파와 케이블TV 등 각종 방송 매체에 불토사가 '찜질방이 있는 이색 사찰'로 소개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병을 고치거나 기도 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불토사는 원래 수백년이 넘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다. 이것을 현 주지 지성 스님이 약사여래도량으로 일군 것이다. 그래서 중무소 앞에서 계단을 오르면 오른쪽에 높이 10m의 약사여래불이 사바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다. 약사유리광여래불이라고도 하는 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부처의 원만행을 닦는 이로 하여금 무상보리의 묘과를 증득하게 한다. 그는 과거세에 약왕(藥王)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대원(大願)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약사십이대원(藥師十二大願)이며,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또 한량없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준다는 의미이다. 이 십이대원 이외에도 극락양생을 원하는 자, 악귀를 물리쳐서 횡사를 면하고 싶은 자,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자들

이 약사여래의 명호를 부르면서 발원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스님은 약사 신앙을 소개했다. 실제로 불토사를 다녀간 환자들이 가피를 많이 입은 사례를 지켜보았다고 찜질방에서 만난 한 신도는 귀뜸한다.

불토사는 전각이 몇 개 안되는 작은 사찰이다. 목조로 돼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 주는 무량수전과 왼쪽의 천불전이 주 전각이다. 역사는 얼마 안됐지만 예불과 기도 만큼은 여느절 못지 않게 철저하다. 주지 스님이 거의 산문 밖을 안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불토사에서 명소중 명소로 꼽히는 곳은 바로 찜질방이다.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음이 가는 절 속 찜질방은 50도 황토방의 열기를 솔깃 침대

천불전, 무량수전, 약사여래불 등 '눈길' 웰빙템플 명성...찜질방, 건강 밥상 제공 기도객 위주로 이틀 전 예약 후 이용 가능

위에서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무료 찜질방으로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사철 운영되고 있다. 거기다 사찰식 채식 밥상도 제공된다. 배가 불러도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는 건강 밥상이다. 또한 예약만 한다면 하루 숙박까지 할 수 있다. 물론 이제는 기도객들에게만 제공된다.

주지 지성 스님은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절을 많이 찾아 찜질로 건강해지라고 찜질방을 만들게 됐다고 밝힌다. 처음에는 찜질복도 제공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세탁하기가 곤란해 이제는 개인지참으로 바꿨다. 불토사 찜질방 이용을 원한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이틀전 예약해야 이용 가능하다. (033)343-0103, www.bultosa.kr.

횡성 불토사=김주일 기자



초기불교의 절에는 찜질방이 있어 스님들이 이용했다고 한다. 약사여래기도도량인 횡성 불토사에는 찜질방이 있어 불자들에게 인기다. 사진은 눈내린 불토사 전경.

“아픈이들 위해 찜질방 만들어”



주지 지성 스님

“불토사는 템플 웰빙 라이프 사찰입니다. 약사여래도량인 만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이들이 많이 찾게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싶어 손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소나무와 숲이 놓여있고 바닷엔 직접 채취한 솔잎들이 깔린 이 천연 황토 찜질방을 손수 만든이가 바로 주지 지성 스님이다. 솔잎들을 바닥에 깔고 덮어 찜질을 하면 원활한 노폐물 배출은 물론 오장육부의 기능강화를 돕는다는게 스님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지성 스님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원활한 기 순환을 위해 쑥 찜을 뜨고 가래떡 각종 약초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도 한다.

“젊은 시절, 척추 관련 질환으로 크게 병을 앓고 난 후 아픈 사람들만 보면 유독 신경이 쓰여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찜질방을 만들었지요.” 김주일 기자

여행수첩

▲주변 여행지

◇횡성호수길=산과 숲에 둘러싸인 횡성호는 남한강 제1지류인 섬강의 물줄기를 막은 횡성댐(2000년 11월 준공)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총 저수량 8,690만톤, 유역면적 209km²인 횡성호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횡성호수길은 2011년 가을에 조성됐다. 모두 6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횡성호수길의 총 연장은 27km. 가장 짧은 3구간 1.5km를 걷는 데 1시간 정도가 걸리고 가장 긴 4구간과 6구간은 각각 7km로 2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6개 구간 중 호수를 가장 가까이서 걸을 수 있는 5구간은 평탄한데다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귀코스라 인기가 높다.

◇자작나무 그늘 아래 미술관 자작나무숲=사

진작가인 원종호 관장이 20여년 전부터 자작나무를 심고 가꾼 전원형 미술관이다. 조성 당시에는 1만2,000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지만 현재는 4,000그루 정도만 남아 있다. 전시실에는 원관장이 찍은 백두산 자작나무숲 사진 등 여러 작품이 걸려 있다. 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스튜디오 갤러리 및 기획전시실인 제1전시실, 상설 전시장인 제2전시실, 펜션 2개동을 갖췄다. (033)342-6833

◇마을 미술프로젝트=횡성군 횡성읍 옛 양조장 거리 일대가 예술·디자인 거리로 새롭게 단장됐다. ‘그리움과 꿈의 시간-백로의 여행’이라는 주제의 횡성 마을미술프로젝트는 횡성 군조(郡鳥)인 백로가 과거와 현재·미래를 여행하는 것을 그림과 타일벽화 등으로 형상화했다. 거리 중심에는 백로가 길을 살피는 조각이 설치됐다.

▲주변 맛집

막국수로 유명한 장가네막국수(033-343-8377)와 덕정식이 맛있는 박가네떡볶이(033-344-1116), 원조수구래해장국(033-343-6489), 강남해장국(033-345-5900) 등이 있다. 무엇보다 횡성의 맛하면 단연코 안흥전빵을 꼽는다. 1968년부터 시작해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면사무소안흥전빵’과 ‘심순녀안흥전빵’이 원조 격인데 둘은 자매다.

▲불토사 가는길

대중교통=횡성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탄다. 절까지 오는 버스는 없다.
네비게이션(자가용)=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원주 IC로 나와 횡성읍내까지 온 뒤 공근 방향으로 직진하다 만나는 첫 다리에서 좌회전 해서 쪽 들어가면 불토사 이정표가 곳곳에 보인다.



사바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약사여래불



1천 부처님을 모셔놓은 천불전 내부



바닥에 솔잎들이 깔려있는 천연황토 찜질방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양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초초 2.배접 3.야교 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솟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신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와, 기초기법(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한 탱화와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한 탱화와 10명 / 기초기법 도안과 10명), 부산(한 탱화와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